

## 지역선도대학사업 5년 성과 공유 워크숍 열어

전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성과·미진한 점 보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단과 도내 4개 대학(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5년간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전북대에서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추진위원 및 실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참여 대학들은 전라북도와 연계한 해외 현지 유학생 유치, 공동 해외 유학박람회 및 입학설명회 추진, 전북지역 공동 한국어 교재활용,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해외 거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5년간 동안 이뤄낸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 대학들은 각 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5차년도 사업 추진의 부족한 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등 자체 평가를 통해 5년간의 사업 마무리와 향후 발전계획에서 대해 논의했다.

특히 5차년도 사업에는 컨소시엄이 그간 구축한 네트워크를 지속 및 확대해 해외 우수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 지자체 및 지역기업체의 공동 현장 실습 및 협력을 강화 등 유학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노완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를 초청해 심도 깊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과 관리방안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전 호치민 총영사를 역임한 박 대사는 베트남의 경제성장률과 한국유학의 높은 잠재력을 언급하며 전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과 도내 4개 대학(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5년간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전북대에서 열렸다.

북지역 대학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농생명·한문화(K-Culture) 융복합 글로벌 인재양성을 주제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방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문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5년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남원소방서, 정신건강 증진 등 직장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6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의 반부패·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자살예방, 청탁금지법 교육,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 등 직장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외래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것으로 남원소방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용주 서장은 "연일 무더위 속이지만 현장 활동하는 소방관 및 남원시민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폭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진안군, 찾아가는 청소년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인체에 해로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각 학교를 방문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을 펼치고 있다.



군 보건소는 흡연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가는 흡연예방 뮤지컬을 기획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 유행이 결합된 뮤지컬과 개그를 통해 집중도를 높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공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 윤병현 김제소방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현장 방문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현)는 26일 관내 대형화재취약대상인 김제요양병원 등 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나섰다. 대형화재취약대상이란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매년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다.

이날 윤 서장은 소방계획서 확인 및 소방훈련 실시여부, 소방시설 적정성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며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 비상구 관리와 직원 초동대처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윤병현 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장소일수록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 방문과 합동훈련을 통해 주요대상별 특성을 파악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익산시, '청소년 건강한 여름나기' 수영특강

익산시 국민생활관 합열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오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 건강한 여름나기'라는 슬로건으로 생존수영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 여름방학 수영특강교실을 운영한다.

여름방학특강 수영교실은 모집기간을 거쳐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주회 실시한다. 수영교실에서는 수영강사의 지도에 따라 물에 대한 적응력 훈련부터, 호흡법, 자유형 등 기초수영을 배우게 되며 청소년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정신집중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강 학생들은 강습기간 동안 토요일·일요일에 자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2000년 12월 개장한 합열올림픽스포츠센터는 전국에서도 좋은 환경과 수질 관리가 우수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 '밤을 잊은 농부들' 봉사단 장수사진 봉사활동 펼쳐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고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주관하는 장수(영정)사진 재능 나눔 활동에 귀농귀촌인협의회와 밤을 잊은 농부들 봉사단이 참여해 장수 어르신 청춘 사진 촬영을 26일부터 시작했다.

봉사단은 장수관내 7개 읍·면 마을의 신청을 받아 마을 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메이크업도 해드리며 어르신들에 환한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첫시작으로 계곡면 외림마을에서 봉사를 시작했으며 기다리시기 무효한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다과도 준비하고 마사지 팩을 준비해 어르신들의 지루함을 덜어주었다.

이번 장수(영정)사진 재능 나눔 활동은 7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며 총164명의 어르신들에게 사진 촬영을 해 줄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농협 부안군지부, 폭염 피해 축산농가 방문 위로

연일 36°C도 넘는 폭염으로 닭·오리 등이 폐사하자 배인태 농협 부안군 지부장이 지난 24일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 관내 축산농가를 방문해 농가 주를 위로하고 피해현황 점검 등 농가 주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부안 관내의 낮 최고기온이 36.8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열대 야로 관내 닭·오리 폐지 등 가축 3만 8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전년 대비 약30% 이상 증가했다.

배인태 지부장은 "최근 급격한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폭염 현상이 발생하여 농축산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안전과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